

## 갤러리 엠나인, 김덕용·김지희 등 신작 선보여



김지희 작가의 'Sealed smile' (갤러리 엠나인 제공)



김덕용 작가의 '심현' (갤러리 엠나인 제공)

갤러리 엠나인이 새해 첫 전시로 김덕용·김지희 작가의 신작을 선보인다.

갤러리 엠나인은 '김덕용&김지희' 전시회를 연다고 1월 12일 밝혔다. 전시는 1월 8일부터 2월 25일까지 진행된다. 지난해 7월 개관한 갤러리 엠나인은 서울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해 있다.

이번 전시는 갤러리 엠나인이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할 전시 기획 프로젝트 'K-Artistes sous le ciel de Paris 2022' 참여 작가의 작품을 소개하기 위해 기획됐다.

김덕용 작가의 신작은 한국적인 아름다움을 현대적으로 극대화한 작품이다.

100년 된 한옥의 나무와 나무 조각에 새겨진 결을 긁어내고 정돈해 시간의 흔적으로 표현했다.

김지희 작가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망을 탐구해 현대적으로 그려낸 신작으로 눈길을 끈다. 화려한 보석으로 꾸며진 안경을 쓴 여인의 모습은 남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인간의 세속적 욕망을 솔직하게 표현한다.

갤러리 엠나인 관계자는 “세대를 넘나들며 미술 시장에 새로운 흐름을 이끌고 있는 두 작가의 작품세계를 통해서 신선한 조합과 그 안에서 어우러지는 미감을 관람객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은별 기자]